

## 지역 소식통

정읍시, 태인축구장 개장  
기념 유소년대회 성료

정읍시에서 열린 2022년 태인축구대회(1차)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태인성황축구장 개장을 기념하고, 국내 축구 꿈나루를 육성하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축구클럽연맹이 주최하고 정읍시축구협회가 주관했다.

6인제(초 1·2·3학년)와 8인제(초 4·5·6학년, 중 1학년)로 나뉘 리그전 예선과 토너먼트 방식 결선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전국의 유소년축구클럽 48개 팀 1,000여 명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뿐만 아니라 축구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다.

열띤 경쟁 끝에 FC포텐셜(2학년), 위닝FC(3학년), JK풋볼클럽(4학년), 주니어FC UI2(4·5학년), 한중FC(6학년 A그룹), 성거FC(6학년 B그룹), 제일유소년FC(6학년 C그룹)이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수현 시장은 “태인성황축구장 개장을 기념해 열린 경기인 만큼 성황리의 경기를 받아 세 계적으로 훌륭한 축구선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농어촌공 정읍지사  
물관리 현장 설명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는 22일 정읍순정축협 2층 대연회장에서 2022년도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수현 정읍시장, 고경운 정읍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정읍시 유관기관 및 농업인 단체, 쌀 전업농, 운영대 의원, 농업관련 오피니언리더 등 250여명이 참석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영농수급률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해 자축하였고, 공시발전면에 기여한 농업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감사의 뜻도 함께 전했다.

이번 설명회는 농어촌의 발전 방향에 관한 영상물 상영, 2022년도 물관리 성과보고 및 농어촌공사 주요사업 보고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농업인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농자은행사업에 대한 홍보도 병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총력’

‘시민이 건강·체육인이 즐거운’

최규철 전북 생활체육위원, 정읍시 체육회장 출마



전라북도 생활체육위원 최규철씨(57)가 ‘시민이 건강하고 체육인이 즐거운 체육의 메카, 정읍’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민선2기 정읍시 체육회장 후보로 나섰다.

최 후보는 22일 오전 11시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인들이 정치적 시각으로 정읍시체육회를 운영하는 비판에 체육이 침체의늪에 빠졌다.”며 “대학과 대학원에서 체육을 전공하고 지도자의 길을 걸어온 경험과 단풍미인 여성축구단을 창단하여 단장과 감독을 겸임한 바 있는 전문 체육인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내달 6일까지 쟁화차·한과 등 담례품 18종 공급업체 모집

정읍시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기부자에게 선물할 담례품 목록 공급업체를 모집에 나선다.

시는 지난 14일 담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지역 대표성과 인지도, 품질과 유동·인정성 등을 고려해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으로 18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담례품은 쌀, 귀리, 토마토 등 농·특산품 7개 품목과 쟁화차·한과·떡 등 가공식품 9개 품목이다.

시는 정읍을 대표하는 최상품 한우와 약용특화작물인 지황을 이용한 제

품도 고급담례품으로 선정해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확보해내기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담례품을 공급할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시는 12월 중 제2차 담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사업목적과 품질, 지역 연계성을 평가해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담례품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수현 시장은 “정읍민의 특성을 살린 기획상품과 체류형 담례품 등을 발굴해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

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정읍에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역에 기부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내의 담례품을 제공받을 수는 제도다.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담례품은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자가 받는 혜택으로 정읍시에 기부금을 기부한 후 선정된 담례품 중 원하는 담례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 고창 방문의 해·고향사랑기부제 적극 홍보

‘제20회 고창 고인돌 마라톤대회’ 서 흥보 부스 운영… 맛과 멋의 도시 알려

전북 고창군이 지난 20일 고창고인돌 마라톤대회에서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고향사랑기부제 흥보부스를 운영하며 맛과 멋의 도시를 알렸다.

고창방문의 해 흥보부스에서는 게임과 SNS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하고, 고창군의 다양한 흥보문화와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디자이너 프로그램으로 마라톤 참여자들이 즐을 서는 등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또 건강코스(5km) 종목 출발 시에는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하여 전국에서 모여든 마라톤 러너들의 관심을 끌었다.



고향사랑기부제 흥보부스에서도 현수막을 게시하고, 기부 대상, 기부 방법, 혜택 등 제도의 기본사항을 방문객들에게 흥보하며 티셔츠, 물티슈 등을 배부했다.

고창군은 12월 1일까지 기부제 담례

품 공급업체 공모를 진행하고 2~5일 신청·접수를 받는다.

십년째 고창군수는 “고창 고인돌 마라톤대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 부안 변산면, ‘희망채움 나눔 냉장고’ 개소 공유문화 확산 주력

부안군 변산면은 주민 자발적 나눔 실천을 통해 마을 지원에 대한 공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변산 희망채움 나눔 냉장고’를 22일 개소했다.

변산면 ‘변산 희망채움 나눔 냉장고사업’은 20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후속 계획으로 지역의 혁신 우수 성과를 읍면으로 확산하여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관내 가정이나 업체 등에서 다 사용하지 못할 식료품 등을 주민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필요한 경우 누구나 필요한 민족 공유할 수 있다.

기부 가능한 식료품으로는 과일,



채소류, 완전 밀폐된 반·완조리 식품(유동기한 명기 필) 등이 있으며 가정에서 조리한 반찬류 및 취식 시

식중독 등의 우려가 있는 식료품들은 기부가 불가하다.

변산면 ‘희망채움 나눔 냉장고’는 평일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아침, 주말,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향후 운영성과에 따라 운영시간 및 요일을 확대할 계획이다.

허진상 변산면장은 “변산 희망채움 나눔 냉장고” 설치를 통해 주민 주도적 마을 지원 활동 및 역량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 누구나 기부 및 공유가 가능하니 많은 분들의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 이정석 부안군수, 변산해수욕장 노을쉼터 점검

부안군 이정석 부군수는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주요사업장을 지난 21일 변산·격포해수욕장 및 격포항을 방문하여 견실시공과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주문했다.

이정석 부안군 부군수는 지난달 21일 전북도청 일자리경제정책관에서

부안군 부군수로 취임 후, 부안군의 성장동력을 찾고 부안군의 강점을

개발하고자 적극적인 행정업무로 문화관광과 현장을 방문했다.

전북도 대표관광지인 변산해수욕장은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중이며, 그 일환인 ‘노을쉼터’는 총 사업비 13억원으로서 2023년 3월 공사

완공을 목표로 인공암을 이용한 폭포·벽면과 그늘쉼터 및 전망대

시공으로 변산해수욕장을 찾는 탐방객

의 오감만족이 예상되고, 격포해수욕장 입구 인근 ‘격포 오션힐링 스테이션’은 총사업비 50억원으로 2024년 12월 공사완공을 목표로 격포관광지

(채석강, 마실길, 격포해수욕장 등)를 찾는 탐방객의 편의증진과 함께 관리사무소, 화장실, 사위장 및 경관 광장 설치로 인근 상가의 조망권이 확보할 수 있게 건축기획용역이 진행 중이며, 설계공모와 행정절차 후 2023년 11월 공사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부안영상테마파크는 영화와 드라마를 활용하는 세트장으로서 현재 tvN에서 방영하고 있는 슈롭의 월드이다.

노후 시설물 보수사업 총사업비는 21억원으로 2023년 상반기내 공사완료로 영상촬영의 메카로 재탄생될 것이다.

이정석 부군수는 문화관광분야는 지역주민 및 탐방객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형성으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일자리 및 지역 경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